

인환실무론

제3장 외국환의 자금결제 방식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 제3장 외국환의 자금결제 방식

1. 외국환의 형태
2. 송금환 실무
3. 추심환 실무
4. 외환결제 시스템

1. 외국환의 개념

(1) 외국환의 개념

① 약속어음(promissory note)약속

-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하여 발행하고 날인한 유가증권을 말함

② 환어음(bill of exchange)

-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
- 채무자(발행인, drawer)가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지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③ 외국환(foreign exchange)

- 외국환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 사용되는 환어를 말한다.

1. 인국환의 개념

(1) 인국환의 주요 당사자

①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 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지급인의 지급을 담보할 책임을 지며, 어음이 부도가 되면 수취인과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② 수취인(payee)

- 일정금액을 지급 받도록 환어음 상에 지정되어 있는 자

③ 지급인(drawee or payer)

- 일정금액을 지급 받도록 환어음에 지정되어 있는 자, 따라서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이므로 지급인을 어음 상에 따로 표시할 수 없다.

④ 인수인(acceptor)

- 지급인은 환어음상에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환어음상에 그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어음금액을 지급할 채무자고 확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인수인이라고 한다.

⑤ 배서인과 피배서인(endorser and endorsee)

- 환어음은 배서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최초의 배서인은 수취인이 되며, 수취인의 배서인에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피배서인이라고 한다.

(1) 송금환과 추심환

1) 송금환

- ① 우편송금환 방식 (Mail Transfer : M/T)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 앞으로 우송

- ② 전신 송금환 방식 (telegraphic Transfer : M/T)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신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

(1) 송금환과 추심환

2) 추심환

- 대금을 수취할 권리자가 외국인의 지급인무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을 은행에 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은행은 이것을 외국 지급지 은행에 송부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추심하는 방법
- 추심의 의의 : 추심(Collection)이라 함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 ①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 ②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 ③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2조 a항)

1. 외국환의 형태

(2) 당발환과 타발환

당발환(outward exchange)

- 외환매매의 시발은행이 자국은행 즉, 당방은행인 외환을 말함
- 예컨대 국내 고객이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국내의 거래은행에 송금을 의뢰하게 되면, 의뢰은행은 환을 발행하여 외국은행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이를 당발송금환이라 하며, 그 송금환을 수신한 은행, 즉 송금을 받아 처리하는 은행을 타발송금환이라고 함
- 이처럼 환을 발생시키는 업무를 당발환(송금이면 당발송금환, 추심이면 당발추심환이라 함)

타발환(inward exchange)

- 환거래의 종착점이 되는 은행을 타발은행이라고 하며, 이 은행이 본 환을 타발환이라고 한다. 송금환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은행은 타발은행이 되고 이 송금환을 타발환이라고 함

(3) 매입환과 매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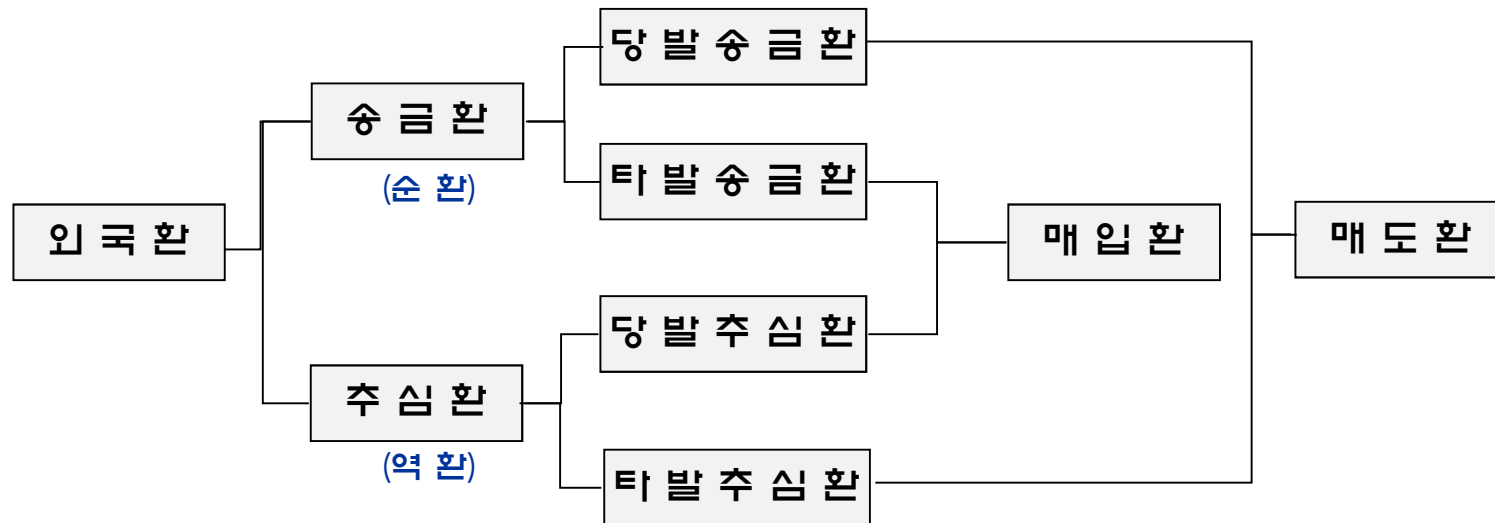
- 매입환(bill bought, buying bill, BB)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한 때, 이 환을 매입환이라고 한다. 매입환은 선적서류의 매입, 차관도입, 송금의 지급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수출어음의 결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매도환(bill sold, selling bill)
- 외국환은행이 원환의 수납을 대가로 외환을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매도환(당발 송금환, 타발추심환)이라고 한다. 수입어음의 결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보통환(우편환)과 전신환

- 외국환은 송금방식에 따라 보통환과 전신환으로 분류됨
- 보통환이란 우편으로 예치환거래은행에게 자행 예금을 인출(debit)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송금환수표방식(demand draft, D/D)과 우편환 송금방식(mail transfer, M/T)이 있으며
- 전신으로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전신환이라고 하며 이에는 전신환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이라고 함

1. 외국환의 형태

외국환의 분류



2. 송금환 실무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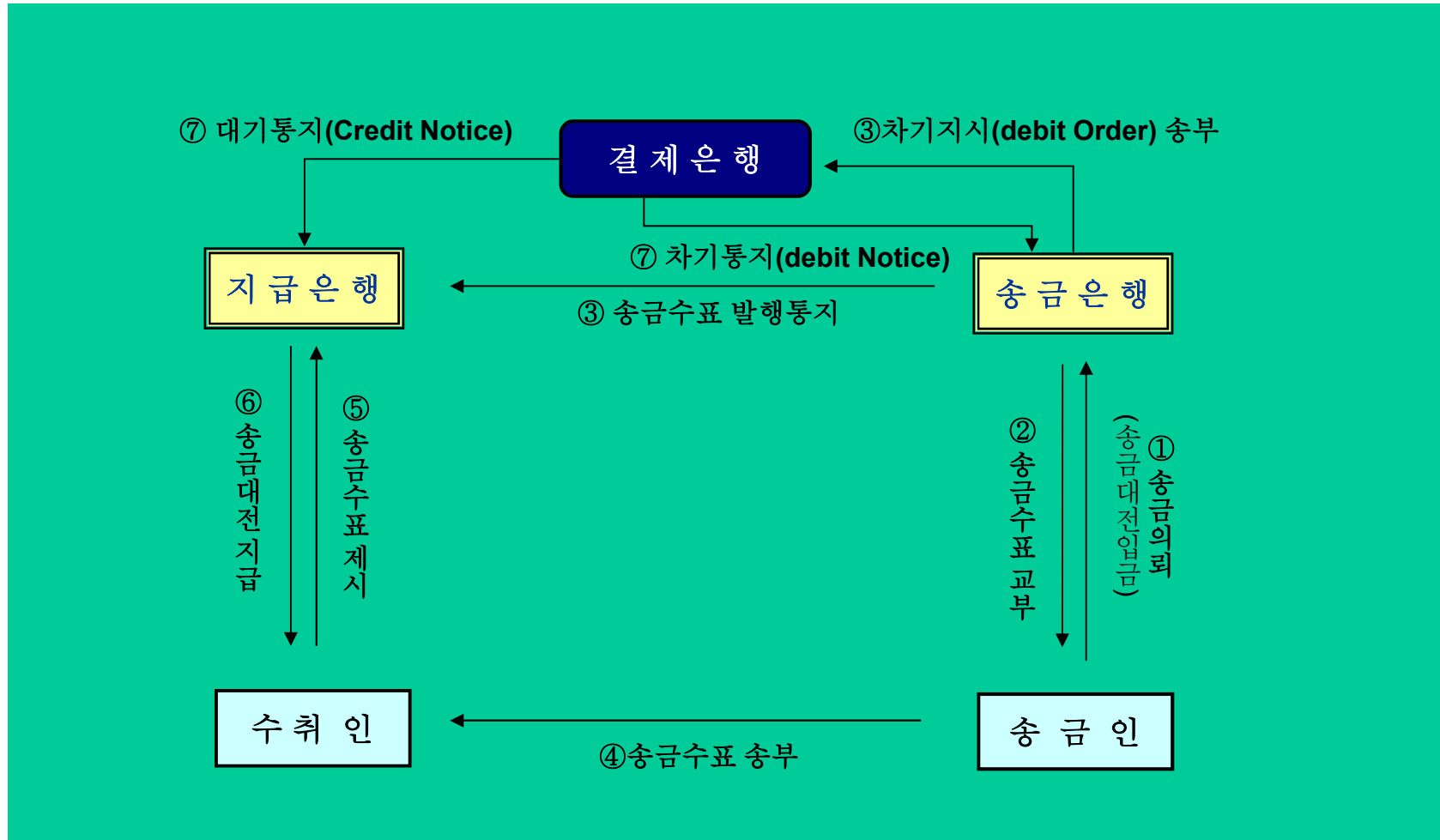
- 송금환의 종류에는 송금수표(Demand Draft, D/D),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M/T) 및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의 3가지가 있음
- 송금수표(money order) : 송금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발행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수취인은 송금수표에 기재된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함으로써 지급을 받게 됨
- 우편송금환 :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지급지시서를 발행하여 송금은행이 직접 우편으로 지급은행에 송부하는 방법
- 전신송금환 : 송금환어음과 같은 방법이나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송부한다는 점이 다름

외환타점 예치계정

- 외국통화의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은 외환당좌예금업무를 취급하는 depositary bank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 이때, 이 계좌를 부를 때, 당좌예금을 개설신청하여 계좌의 주인이 되는 은행에서는 이 계좌를 nostro a/c(our account with you)라고 부르며, 이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에서는 이 계좌를 Vostro a/c(your account with us)라고 부른다.
- Vostro는 타방계정이라 하고, nostro는 당방계정이라고 하기도 하며, 또한
- Vostro 계좌를 shadow a/c, nostro 계좌를 actual a/c라고도 함
- 한편 Loro account란 두 은행간의 거래에 제3의 은행이 개입될 경우 두 은행 중 한 은행이 제3의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상대방의 계정을 가리킬때 이르는 말이다. 즉, A, B은행이 모두 C은행에 당좌계정을 갖고 있을 경우, A은행은 C은행에 개설된 A의 예금 일정금액을 B은행이 A의 계좌에서 C은행에 이체할때를 지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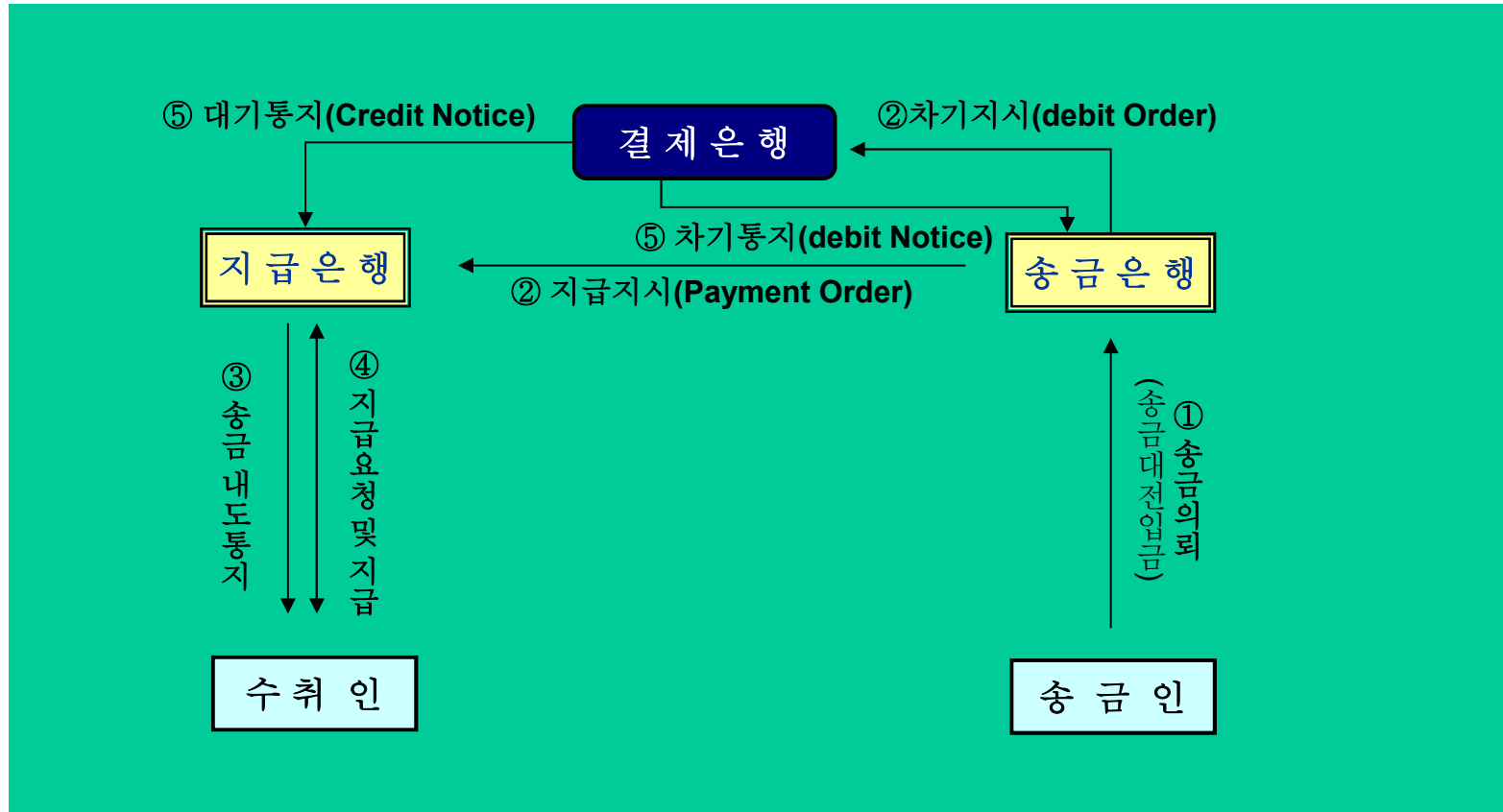
2. 송금환 실무

(2) 송금환(우편환)의 흐름도



2. 송금환 실무

(3) 전신환의 흐름도



(1) 추심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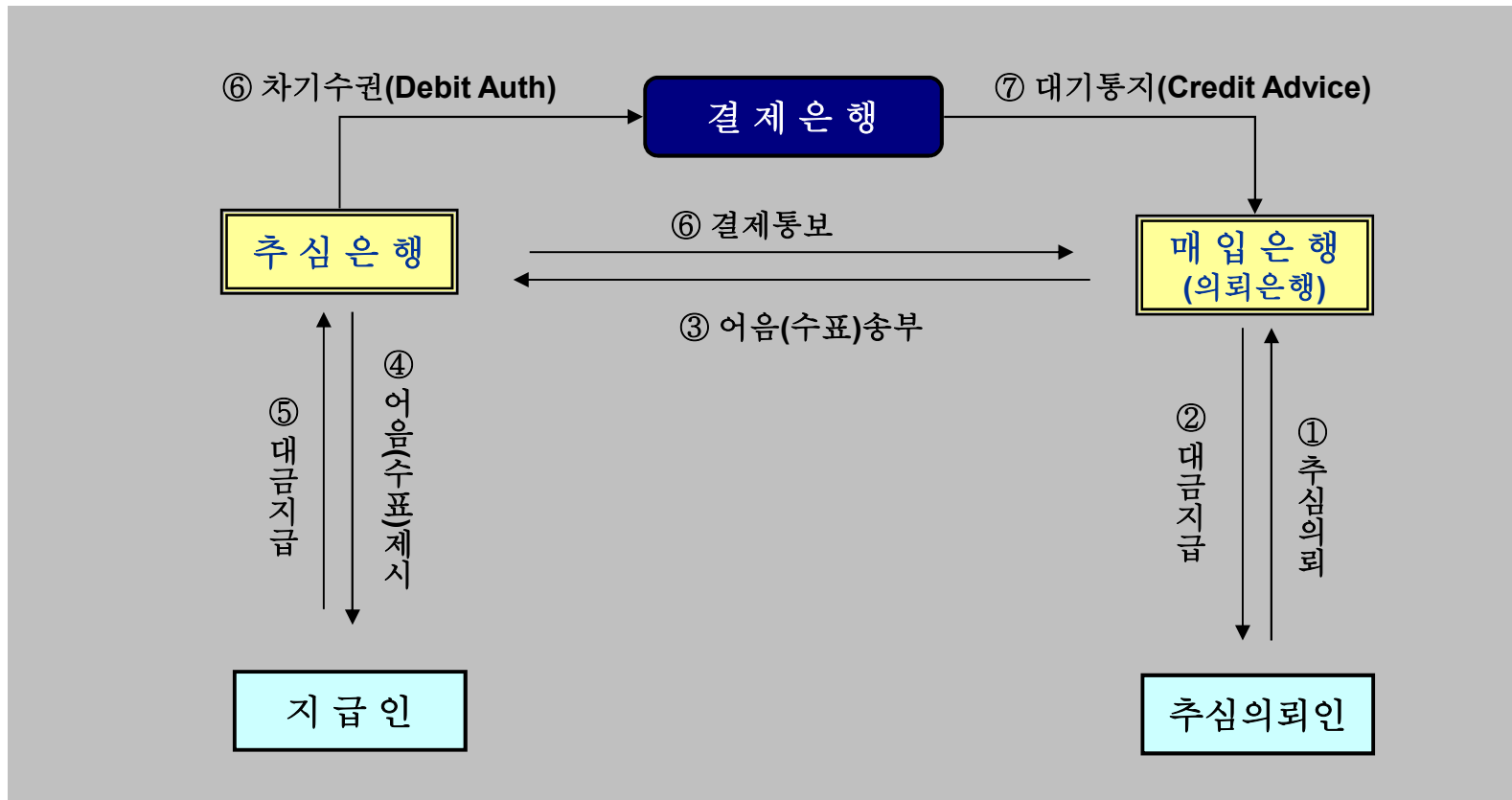
- 추심환(collection)이란 송금환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채무자 앞으로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추심하는 방법
- 송금환의 순환과 대비하여 역환이라고도 함
-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

(2) 추심환의 종류

- 추심에는 당발추심과 타발추심으로 나누어짐
- ① 당발추심(outward collection)
 - 추심의 시발점에서 본 추심을 당발추심이라고 함
- ② 타발추심(inward collection)
 - 추심의 종착점에서 본 추심을 타발추심이라고 함, 당발은행에서 환을 추심하려면 추심은행에 도착된 경우 추심은행의 입장에서 본 추심을 의미함
- 추심은 또한 추심전매입과 추심후매입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① 추심전매입(bills purchased, B/P),
 - 어음이나 수표를 추심하여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추심후매입(bills collected, B/C)
 - 추심에 의해 대금이 입금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3. 추심환 실무

(3) 추심환의 흐름도



※ **외국환은행은 수표나 어음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먼저 고객에게 지급하는 매입절차의 방식과 수표나 어음의 대금을 추심에 의하여 추심은행으로부터 동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Bill Purchased(추심전) 이라하고 후자를 Bill Collection(추심후)이라 함**

(1) 개요

- 외환결제란 외환시장에서 외환매매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외환의 매도 및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 지급함으로써 종결짓는 행위를 말함
- 외환시장에서 외환자금의 결제는 은행권수수나 수표발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거래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함
- 환거래네트워크(correspondent banking network)는 외국환은행들이 세계 주요국의 국제은행들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치금계정(nostro account)이나 당좌예수금계정(vostro account)을 설정하고, 수표, 이체지시(transfer order), 전신이체(wire transfer) 등에 관한 전문교환을 위해 국제통신기관인 SWIFT 등에 가입함으로써 형성된다
- 거래형태로는 vostro a/c to vostro a/c 결제, vostro a/c to nostro 결제 또는 nostro to vostro 결제를 들 수 있음
- 은행간 외환거래는 ①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과 ② CLS방식이 있음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이 있음

1. 거액결제시스템

-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템. 신한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신한은행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
- 신한은행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

2. 소액결제시스템

-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 건당 거래금액은 적지만 거래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
-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작

3.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 결제)
- 지로시스템 (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적으로 소액대량 자금이체)
- 은행공동망 (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통한 온라인송금, 잔액조회 등)
 -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 소액 인출 · 입금 · 송금
 - 타행환공동망 : 1억원 이하의 타행앞 송금
 - 지방은행공동망 :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 · 대출거래망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결제
 - 전자화폐(K-CASH)공동망 : 은행 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10억원 이하의 송금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개인간(B2C)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개인의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간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4. 기타 결제시스템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외에도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운영하는 전자화폐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결제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다.

① **증권결제시스템** :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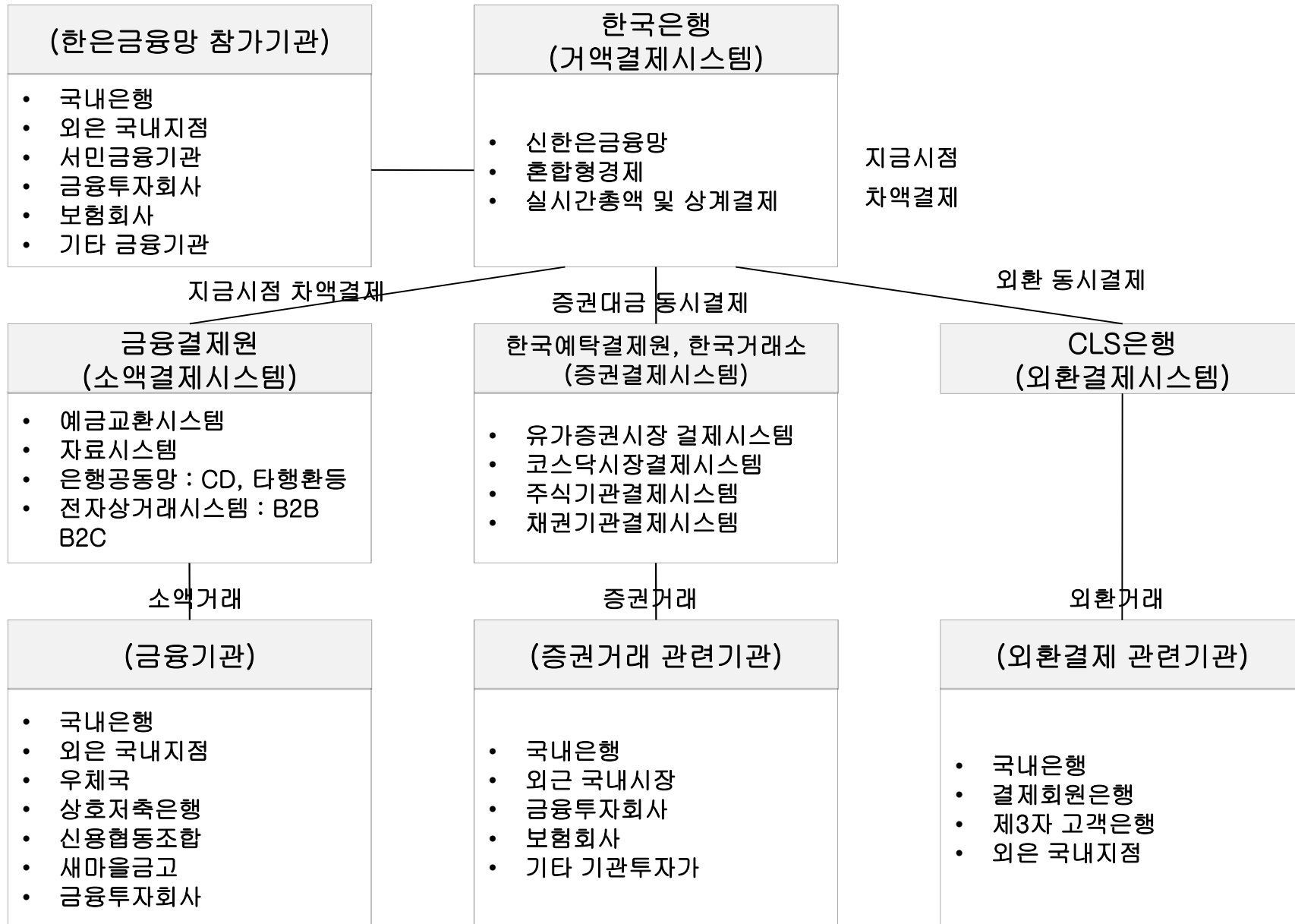
- 증권 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의 소유권을 장부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 앞으로 옮기는 계좌대체를 통해 이전되며, 증권 매매대금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간의 계정을 통하여 결제
- 증권결제시스템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 주식기관투자자 및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이 있음.

② **외환결제시스템** :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

- 외환결제는 환거래은행을 통한 건별 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짐
- 그러나 이 결제방식은 지역간 영업시간이 달라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우려 있음
- 이와 같은 리스크를 외환을 동시에 결제하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에 동 시스템을 도입

4. 외환결제시스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의 구조



4. 외환결제시스템

(2)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

- 거래 통화별로 지정된 환거래은행에 거래 건별로 매도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해당 환거래은행은 해당 통화의 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환거래은행에 지급을 이체하는 방식을 말함
- CLS시스템이 정착하기 이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임
- 예컨대 서울의 K은행(미달러화 매입, 원화매도), 홍콩 H은행(미달러화 매도, 원화 매입)의 거래를 가정한 결제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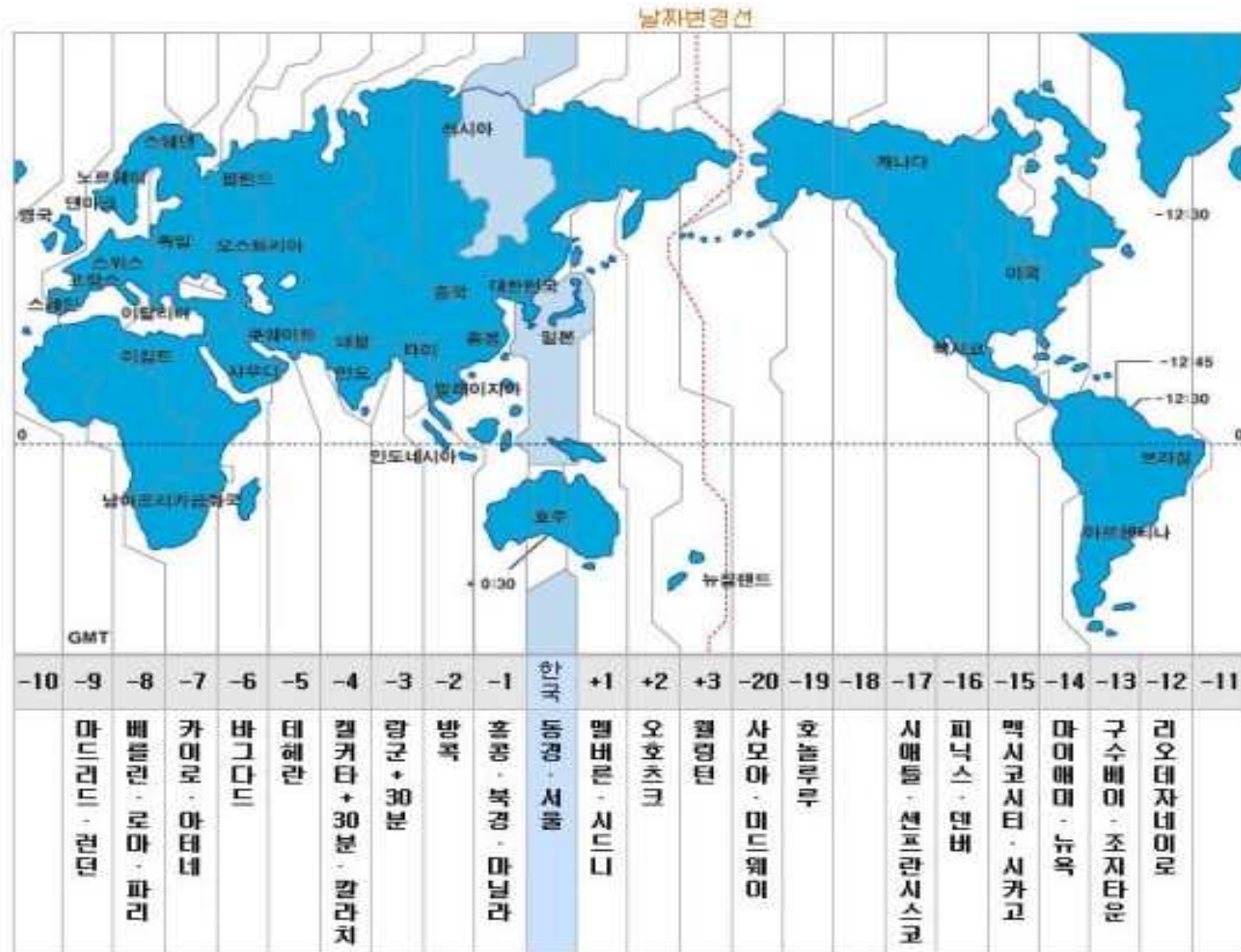
- ① 양 거래은행은 SEIFT 메시지 교환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상호 확인
- ② K은행은 신한은금융망(BOK-wire+, 한은금융결제망)을 통해 원화 매도분을 H은행 서울소재 환거래은행앞 이체
- ③ H은행은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에 미달러화 지급지시를 전송
- ④ H은행은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은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미국 민간운영 거래결제시스템)를 통해 미달러화 매도분을 K은행의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앞 이체
- ⑤ K은행 및 H은행의 환거래은행은 미달러화 및 원화의 입금내역을 각각 해당은행에 통지하고, K은행 및 H은행은 이를 자행이 관리하는 계정shadow a/c)과 환대시여

(3) 외환동시결제

- ① 외환결제리스크
 - 외환매매시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지역간 시차로 인해 매도통 환안 매입통환의 결제시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함
 - 즉,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환자금 이체의 경우 해당 지역간 시차가 큰 경우 1 영업일 내 결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국내은행이 미국내 환거래은행 앞으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양국간 14시간의 시차로 인해 주로 익일 새벽시간(한국시간 기준) 중 결제처리가 완료되며, 수취은행도 익일 영업일에 자금이체 완료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4. 인환결제시스템



4. 외환결제시스템

거래시간

국가	도쿄, 서울
호주 개장	07:00
아시아 개장	09:00
유럽 개장	16:00
런던 개장	17:00
뉴욕개장	22:00
런던 폐장	02:00다음날
미국 폐장	07:00

FX 마진 거래시간(한국시간)
07:00(월) ~ 06:00(토) - 표준시간 기준
06:00(월) ~ 05:00(토) - 일괄절약시간 기준

런던	34.1%
뉴욕	16.6%
스위스	6.1%
일본	6.0%
싱가포르	5.8%
홍콩	4.0%

* 3대 외환시장: 런던, 뉴욕, 도쿄

▶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이 겹치는 오후 10시 ~ 새벽 2시에 외환거래의 66%가 이루어진다.



(3) 외환동시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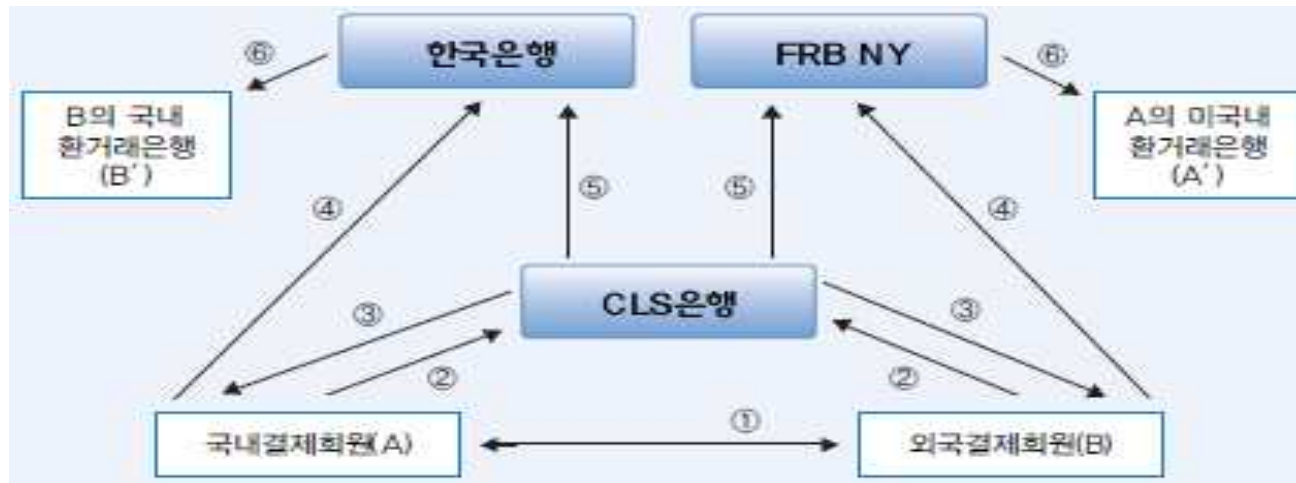
① CLS시스템

-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의 권고에 따라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함
- CLS시스템은 운영기관(CLS은행 및 CLS Service Ltd. 등),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 제3자고객(third party)인 참가기관 그리고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 CLS은행의 참가기관은 2009년 6월말 기준 59개 결제회원과 5,300개의 제3자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결제회원은 CLS그룹 지주회사의 주주로서 CLS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자기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고객의 거래도 수탁, 결제함
- 제3자고객은 CLS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고 결제회원은행을 통하여 외환결제를 위탁, 처리함
- 결제통화국 중앙은행도 CLS시스템의 일부분을 차지함, 왜냐하면 CLS은행이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에 CLS은행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결제회원들과 자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4) CLS시스템의 외환동시결제 구조

① 결제절차

CLS시스템의 결제는 CLS은행과 결제회원간에 복수통화(매입통화 및 매도통화) 자금을 각 결제통화국 RTGS시스템을 통하여 주고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일중 단 6건의 거래만 결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과정은 그림과 같다.



- ① 국내 결제회원 A(달러매입, 원화매도)와 외국 결제회원 B(달러매도, 원화매입)의 거래계약 체결
- ② 거래내역의 CLS은행앞 전송
- ③ CLS은행은 다자간 차액계산후 A은행 b앞 자금납입(pay-in) 요청
- ④ 은행 A 및 B는 각각 한국은행 및 뉴욕연준의 CLS은행 계좌로 매도통화 자금납입
- ⑤ CLS은행은 납입된 자금의 확인 후 한국은행 및 뉴욕연준에 은행 A 및 b앞 매입통화 지급(pay-out)을 요청
- ⑥ 한국은행 및 뉴욕연준은 매입통화 자금을 각각 은행 A 및 B의 환거래은행(은행 A' 및 B')앞 입금처리

-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지역간 시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20: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한국시간 기준 14:00~17:00)
- CLS은행내 결제회원 계좌간 가상결제는 다자간 상계방식으로 이루어진 후 이에 따른 차액만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실제로 결제되므로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결제회원이 CLS은행앞으로 실제 납입(pay-in)하는 금액은 거래액의 약 1.2% 수준임)

인환실무론

제4장 해가 지지 않는 외환시장 (FX Market)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 제4장 해가 지지 않는 외환시장

1. 외환시장의 의미
2. 외환시장의 특징
3.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4. 외환시장의 참가자
5. 세계의 주요 외환시장
6. 외환시장 전문용어(FX Market Termi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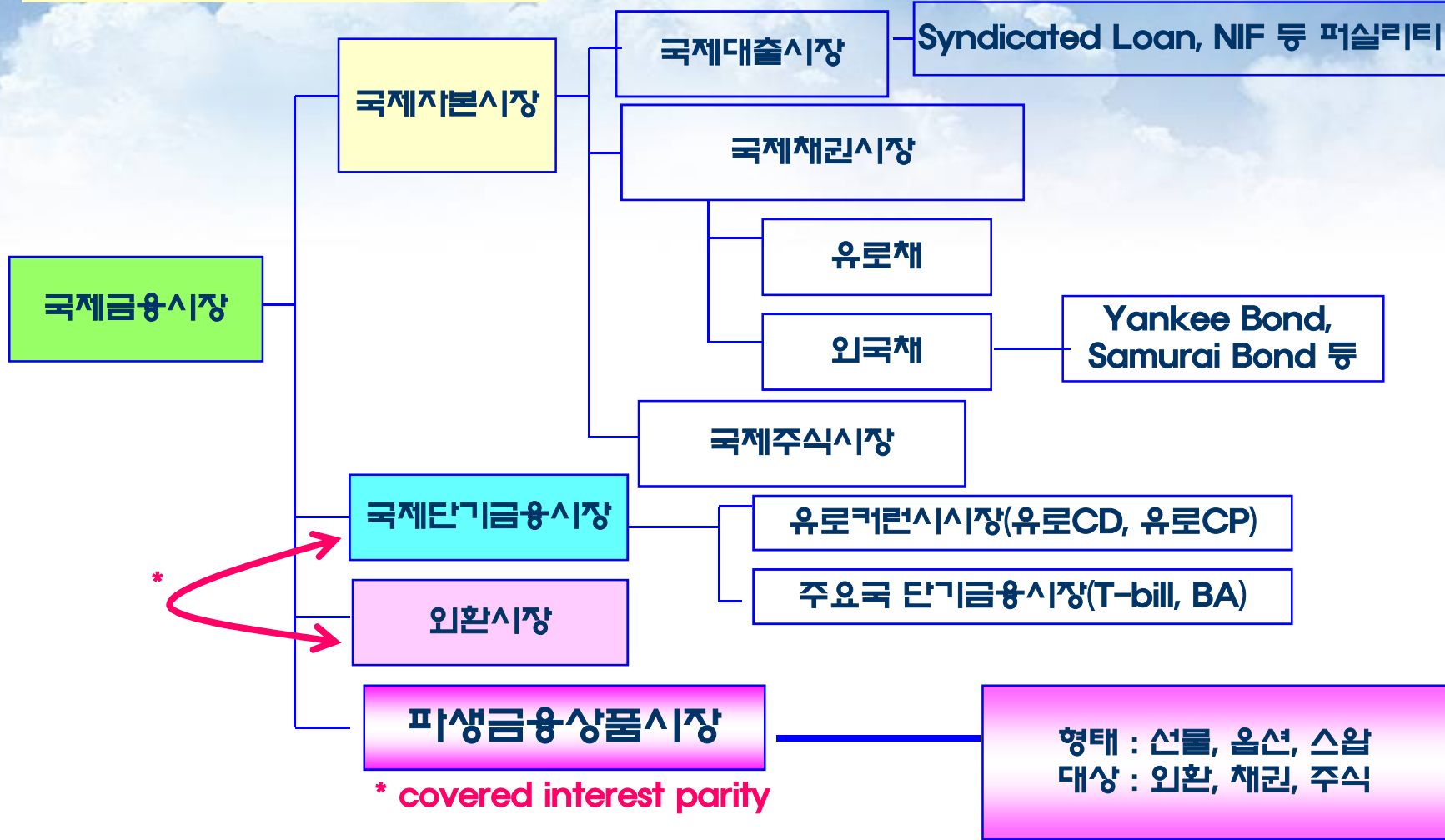
외환 시장이란?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 외환의 매입자 · 매도자 · 딜러 · 브로커로 구성되는 시장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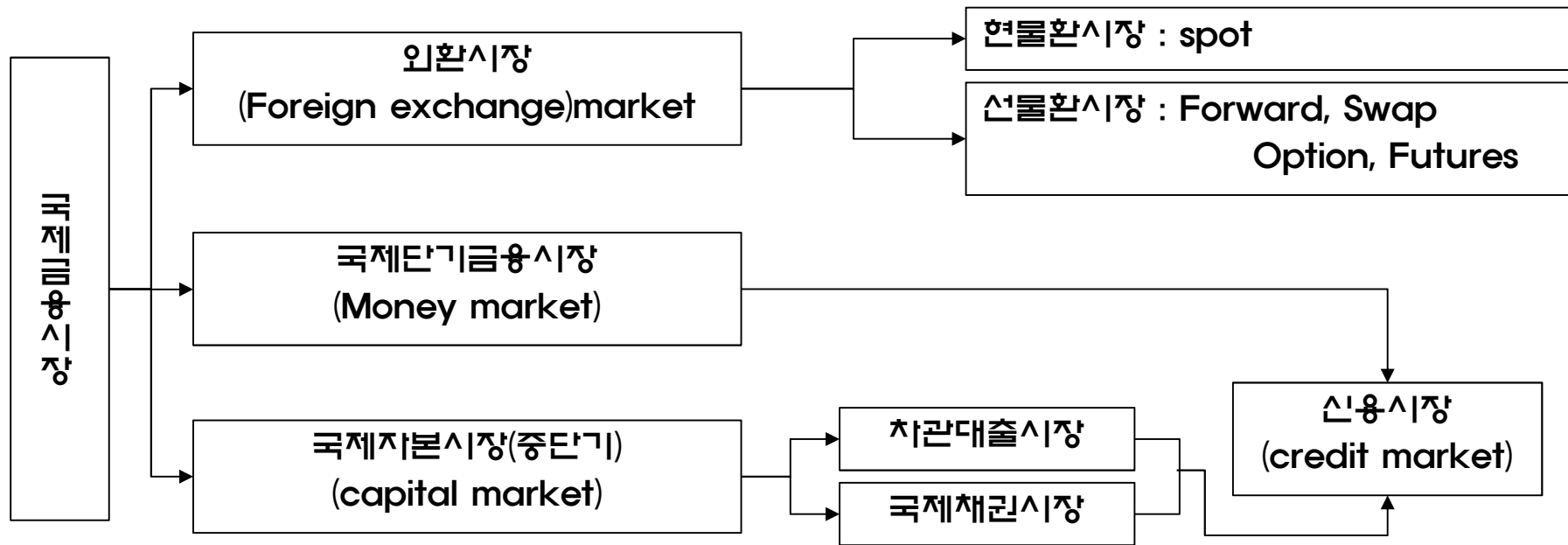


1. 외환시장의 의미

(1) 국제금융시장의 구분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 국제단기금융시장과 국제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의 국제금융시장



② 국제단기금융시장 (international money market)

1.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 돈 시장, 외환 시장, 외환 시장, 외환 시장 (B/A), 단기 채권 증권 (같은 채권) 국제 증권 시장 (DR, DR, DR, DR, DR) 등과 같은 주식과 관련된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3) 거래시점에 따른 시장구분

① 현물시장(Spot market)

- 거래가 성립되는 시점과 대금결제 시점이 동일한 시장을 말함
- 외환현물시장과 자원현물시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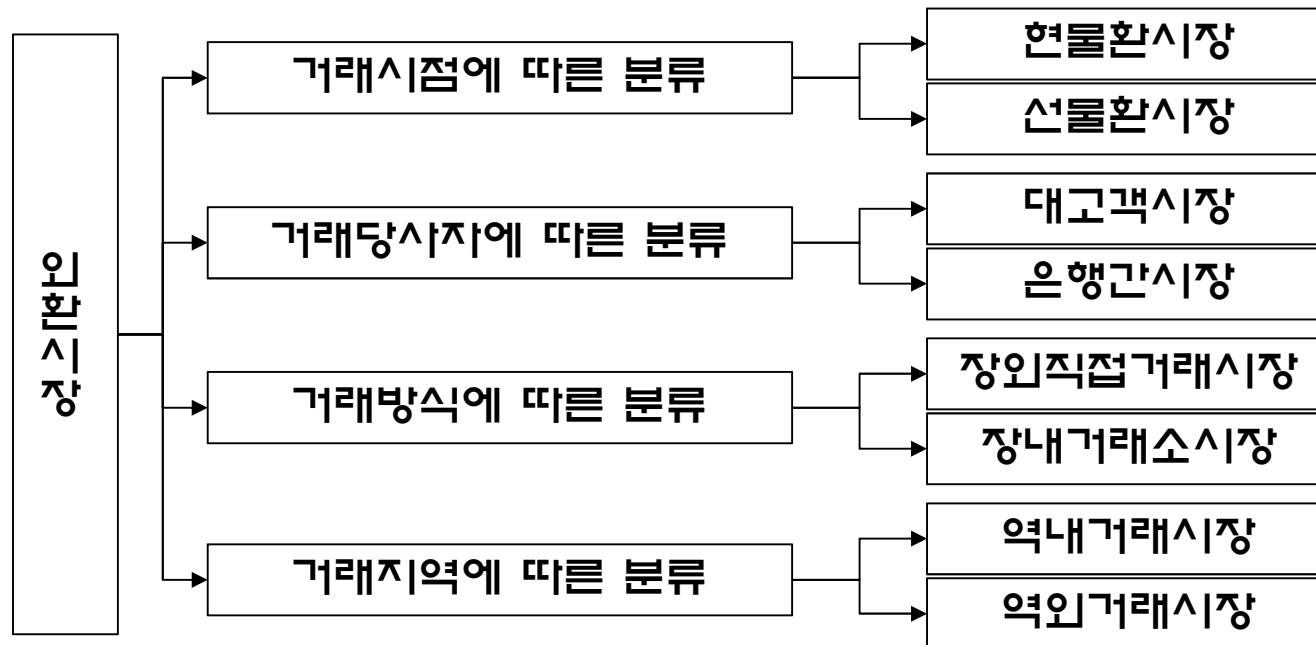
② 선물시장(futures market)

- 미래의 특정시점에 인도될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계약시에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일정시점에 인수,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함
- 금융자산으로는 외환, 자금, 채권이나 주식 등이 있으며, 이들 기초자산(underlying asset)과 관련된 위험관리나 투기목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함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는 선물거래, 스왑거래, 옵션거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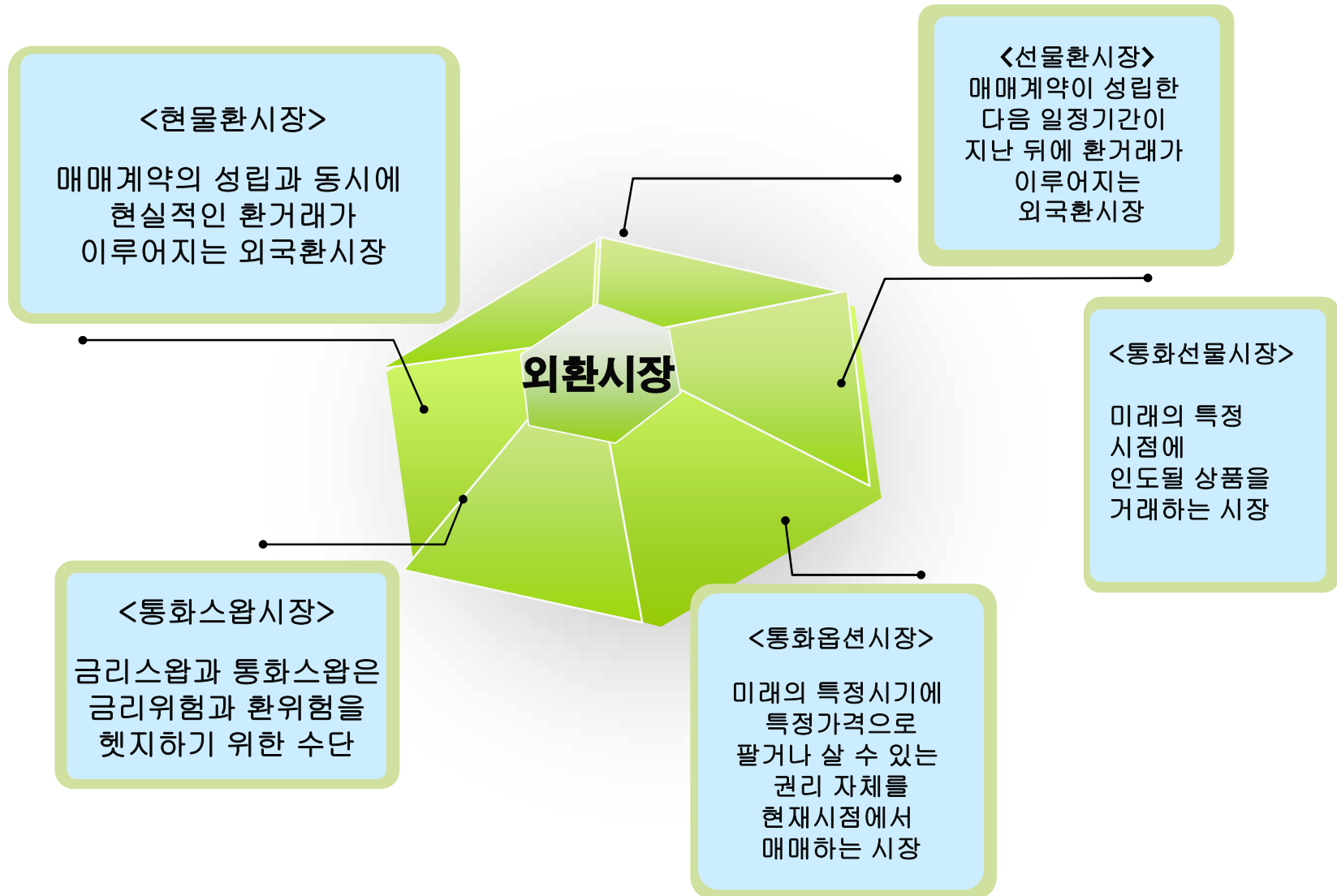
1. 외환시장의 의미

(4) 외환시장의 구분

- ① 거래지역에 따른 구분
- ② 거래당사자에 따른 구분
 - 1) 장외시장 (Off-shore market) : 외국환은행인 딜러들이 직접 거래하는 시장
 - 2) 장내거래소시장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시장
- ③ 거래방식에 따른 구분
 - 1) 장외직접거래시장 : 외국통화의 매매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 2) 장내거래소시장 : 외국통화의 매매거래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역외시장에서 금액과 통상 현물환을 거래되던 것보다 선물환일 거래됨. (선물환 시장: Non deliverable forward, NDF) 선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음



외환시장 및 외환거래의 이해



1. 외환시장의 의미

- 1) 현물환 시장 (Spot) : 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달러 인수일)까지의 기간이 2영업일 이내
- 2) 선물환 시장 (Forward): 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3영업일 이상
 - Outright Forward : 결제일에 총액 결제
 - NDF (Non-Deliverable Forward): 결제일에 계약가와 기준가의 차액결제 (거래시간외 거래)
- 3) 스왑 시장 (Swap) : 이중 통화간 Swap
- 4) 선물 시장(Futures) : 장내 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CME)
- 5) 옵션 시장 (Option) : 다양한 옵션 거래
- 6) 은행간 현물환 시장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거래 시간	9:00~15:00 (6 시간)
거래 단위	10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단위
호가 방법	10전 (0.1/\$) 단위 (예; 매입호가 943.7, 매도호가 943.8)
참가 기관	57개 금융기관 (대부분 은행, 일부 증권사와 중금사)
대고객 수수료	대기업은 10~20전/US, 중소기업은 1원/US 도 받기도 함

2. 외환시장의 특징

- 특정장소나 공간을 지칭하기 보다는 총괄적인 거래매커니즘 및 거래양태를 의미
- (1) 범세계적별시장(one global market)
 - 외환거래량의 급증, 통신수단의 발달, 부단한 환율변동
 - 하나의 통합시장으로서의 범세계적 시장
- (2) 2가격시장(two way market)
 - 매도율(offer rate)과 매입율(bid rate) 두 가지 환율이 동시에 고시되는 시장임
- (3) 24시간 시장(24-hour market)
 - 지리적 시차로 거래시간이 중복되어 연결됨으로써 세계 전체적으로는 하루 종일 중장(close)이 없는 해가 지지않는 시장
- (4) 점두시장(over-the-counter market, OTC)
 - 외환시장은 거래당사자들이 대면 접촉하여 외환을 매매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통신매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거래체결이 가능한 일종의 장외시장

2. 외환시장의 특징

- (3) 통신매체이용 시장(telephone market)
 -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4) 제로섬시장(zero sum market)
 - 외환시장의 한 거래자가 이익을 얻으면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게 되는 시장

- (5) 달러기준시장
 - 달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세계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세계통화에 대한 환율표시의 기준이 됨

(3)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 ① 첫째,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함.
 - 가령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환을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환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됨.
- ② 둘째,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
 -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줌.
- ③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
 -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음
- ④ 넷째,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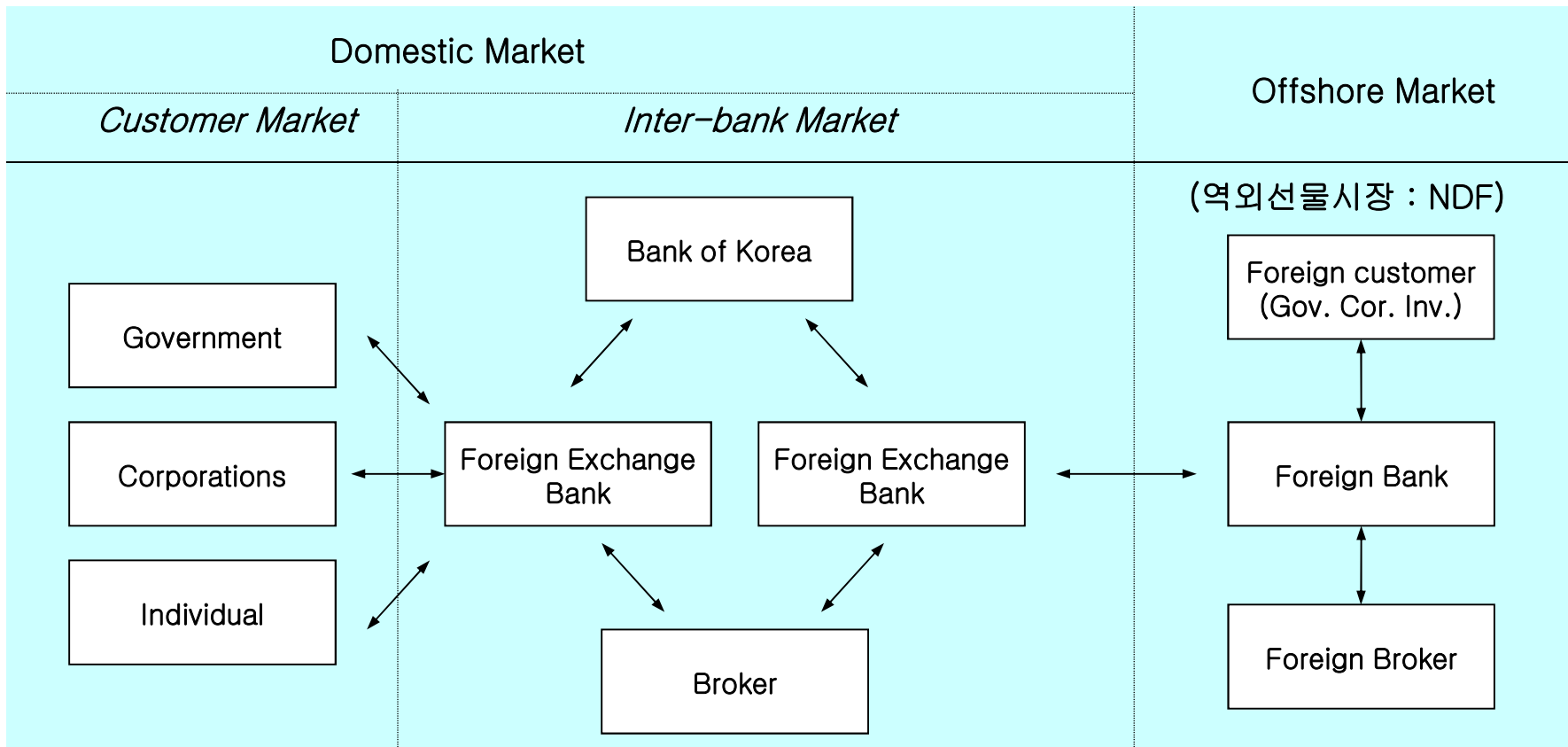
2. 외환시장의 특징

(3)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 ①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짐
 - ②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
 - ③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 짐.

4. 외환시장의 참가자

외환시장의 구조



4. 외환시장의 참가자

국제 외환시장의 주요 참가자



(1) 외국환은행(foreign exchange bank)

- 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된 은행을 말함
- ② 고객의 요구에 따라 외환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역할을 함
- ③ 또한 외환매매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간 거래(inter-bank foreign exchange transaction)을 하기도 하며, 외환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이자재정거래(interest arbitrage transaction)를 하거나 환투기거래(foreign exchange speculation transaction)를 하기도 하는 외환시장의 제1참가자임
- ④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서로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고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매매차익을 얻고자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시장조성자/시장주도자(market maker/leader)라고 하며, market maker가 제시한 가격(환율)로 외환거래를 수동적으로 거래하는 자를 시장추종자/시장이용자(market follower/user)라고 함
- ⑤ 은행간 거래에 있어 환율제시은행을 quoting bank라고 하며, 환율요청은행을 calling bank라고 함

4. 외환시장의 참가자

(2) 고객(customer)

- 무역업자나 일반 개인 등 외환거래가 필요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함
- 무역회사, 여행자 등 외환의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를 위해 참여하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 등 제2금융기관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음
- 실수요자는 주로 환리스방지를 위해 참여해 왔으나 최근들어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2) 중앙은행(central bank)

-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국 및 세계의 환시장의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인위적으로도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매매에 참여하기도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됨(한국은행)
- 또한 외환보유액(대외지급준비자산)의 운용, 정부 외환거래의 대행, 국제기구와의 외환거래를 위해서도 시장에 참여함

(4) 외환 브로커와 딜러(Fx broker and dealer) 및 거래자(trader)

① 딜러(dealer)

- 합법적인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외환, 유가증권, 상품, 파생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를 말함, 미국에서는 trader라고도 함
- 딜러는 소속기관으로부터 거래한도, 책임 및 권한 등을 위임받아 자신의 인도에 따른 포지션 및 위험을 보유한다.
- 또한 거래하는 자산의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에 참여함
- 이에 비해 브로커는 딜러 또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장내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며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임

② 브로커(broker)

- 외환시장에서 자기계산으로 외환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 대 고객 또는 은행 간거래에서 외환매매 중개에 의해 중개수수료(brokerage, commission)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
- 외환거래는 buyer와 seller간의 직거래 즉, over the counter(OTC)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급변하는 환율변동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를 모두 OTC거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이 경우 브로커를 이용하면 많은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브로커는 신속하게 외환시장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buyer와 seller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
- 브로커는 자기 포지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brokerage)를 징수하며, 거래가 성립되기 전에는 절대로 고객의 주문금액과 환율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4. 외환시장의 참가자

딜러(Dealer)

= 시장조성자(Market Maker)

- 상대방이 원하는 거래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역할
- 항상 거래대상 통화의 포지션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환율이 변동하면 통화의 가치가 변하므로 환리스크에 노출



4. 외환시장의 참가자

Dealer vs. Broker

딜러(Dealer)	브로커(Bro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위험과 계산하에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음 • 환율변동으로부터 매매익을 추기함, 투기거래도 함 • 시장을 개시(open)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산의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환위험이 없음 • ‘매매손익은 없으며, 수수료를 수입으로 함. 투기거래는 할 수 없음 • 자기능력으로 시장을 개시하지 못함

외환시장 참가자

참가자	개념
고객 (customer)	상품 및 용역의 대외거래에서 외환거래가 필요한 수출업자나 해운회사 등
외국환은행 (foreign exchange bank)	대고객거래에서 생긴 환포지션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 외환거래가 필요한 Market maker로서의 상업은행
중앙은행 (central bank)	정부거래 대행,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거래,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외환거래가 필요한 각 국의 중앙은행
중개인 (broker)	은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환매매를 중계하는 기관

(1) 뉴욕외환시장

- 뉴욕외환시장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였으므로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없어 늦게 창립됨
- 1979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외환시장이 됨
- 미국에서는 은행이 외환거래를 취급하기 위하여 따로 공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데 약 200개의 미국은행과 같은 숫자의 외국은행 지점이 참가
- 중앙은행인 Federal Reserve Bank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대행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장에 참가
- 뉴욕외환시장에서의 거래는 ①대고객거래, ②은행간거래, ③뉴욕 주요은행의 국제외환시장과의 거래로 구분됨
 - ① 대고객거래는 국제거래가 미달러로 이루어지므로 많지는 않지만 외국통화 예컨대 독일 마르크, 파운드, 캐나다 달러 또는 일본 엔 등의 매매금액은 크다.
 - ② 은행간거래는 은행들이 직접거래를 하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함. 외환 브로커는 9개사가 있으며, 은행과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여러 외국통화를 취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임
 - ③ 뉴욕의 큰 은행과 국제외환시장과의 거래는 뉴욕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됨. 이러한 거래는 외국의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의 중앙은행과도 하고 있다.
- 뉴욕외환시장은 국제외환시장 특히 런던외환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욕외환시장은 스텔링 파운드를 주로 런던외환시장에서 매입하고, 런던외환시장은 미달러와 캐나다 달러를 뉴욕시장에서 매입하고 있음.
- 외국과의 US\$현물환거래는 뉴욕의 은행내의 nostro a/c에서 이체된다. 세계의 미달러 환거래는 뉴욕의 컴퓨터화 된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을 통해서 결제됨

(2) 런던 외환시장

-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시장.
- 외국환은행제도가 없으므로 외환시장 참가 은행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외국은행을 포함. 약 600개 은행이 되며 세계 주요 은행은 모두 지점을 설치하고 있음
- 그 결과 외국은행의 거래비율이 약 80%에 달하여 뉴욕이나 동경시장보다 훨씬 높음.

① 런던시장이 세계적인 외환시장이 된 이유

- 역사적으로 외환거래의 중심지로서 the City의 기능이 확립되어 있고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딜러 및 브로커가 우수함
- 24시간 외환거래가 가능함. 오전에는 아시아, 중동, 유럽대륙과 주로 거래하고 오후에는 뉴욕시장과 거래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짐
- 외환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유로금융(유로자금거래, 유로통화대출, 유로채발행 등)이 런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유로(유로달러, 유로마르크, 유로엔 등)금융과 외환거래가 같은 은행에서 이루어짐

② 런던시장의 특징

- 총거래액 중에서 은행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큼. 그 이유는 외환거래가 유로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 거래통화는 1995년 현재 US/DM이 약 22%, £/US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외환거래의 약 60%는 선물환거래로써 대부분이 스왑거래임. 현물환거래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것에서도 도매시장으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남
- 최근에 미달러를 대가로 하지 않고 DM이 개재된 크로스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4) 동경 외환시장

- 1963년 환시세변동폭의 확대 및 평형조작의 도입과 1964년 일본이 IMF 8조국으로 바뀔 때 따라 동경외환시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1971년에 변동환율제도로 이행, 1980년 12월 외환관리법개정으로 외환관리가 원칙금지로부터 원칙자유로 전환되어 더욱 발전
- 1990년대는 런던과 뉴욕 다음으로 중요한 외환시장으로 성장
- 동경외환시장 참가자는 외국환공인은행(330개 은행), 외환브로커(8개사)와 평형조작당국으로 구성
- 외국환공인은행은 외국환은행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환전문은행(현재는 도쿄·미쯔비시은행) 및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방법은 외환브로커를 통한 중개거래만 허용되다가 1984년 7월부터는 은행간 직접거래가 허용
- 평형조작당국은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대신함. 시장개입은 현물환에 한함.
- 엔화의 준기축통화로써의 지위 강화로 조작당국의 외환시장개입의 중요성 증가
- 대고객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된 환율은 그날의 거래에 하루 중일 적용되나 일중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영업일중에 변경시키기도 함
- 동경시장은 규모는 크나 시차관계상 동일시간대에 개장되는 유럽이나 뉴욕시장이 없으므로 뉴욕시장의 전일시세에 크게 좌우되는 실수요중심의 시장이라는 특색이 있음.
- 종래 동경시장은 현물환과 선물환시장만이 존재하였으나 1989년부터 USD/¥의 통화선물을 취급하는 동경금융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헤지시장으로서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
- 미국과 유럽과는 시차관계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나 호주와 동남아와는 거래가 활발
- 통화별거래는 달러·엔 거래가 7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성이라는 면에서 런던시장이나 뉴욕시장보다 높다고 할 수 없음

(4) 유럽대륙의 외환시장

① 프랑크푸르트 시장

-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외에도 7개의 외환시장이 있음. 각 외환시장에 환거래소가 있으나 외환거래의 중심은 독일중앙은행(Bundes Bank)의 본점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로서 각 거래소의 주문이 이곳에 집중되어 환율이 결정됨
- 환거래소를 통한 외환거래의 비중은 낮고 대부분 장외거래됨
- 마르크가 지금 국제통화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면에서 세계 3대시장에 크게 뒤지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자유로운 자금·외환거래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

② 쥐리히 시장

- 스위스 외환시장은 쥐리히, 바젤, 제네바, 로잔느, 베른 등에 있으나 쥐리히가 그 중심
- 스위스는 다른 유럽대륙시장처럼 환거래소가 없고 전화 및 텔렉스로 거래하는 장외시장만 있음
- 스위스는 자체 경제규모가 작으나 정치적 안정 및 은행의 전통적인 비밀보장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피성 자금이 유입되고, 또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 스위스 프랑 표시 외채발행규모가 커서 외환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③ 그 밖의 유럽대륙 시장

파리를 비롯한 그 밖의 유럽대륙시장은 역내통화 및 ECU거래가 활발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통합EC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0년 1월에 외환관리를 전면 철폐하고 금융·외환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파리시장의 발전이 주목됨

교재 참조

감사합니다

